

# SK그룹, 채용 확대에 현금결제 강화

30% 늘어난 2600여명 채용 ... 현금결제 지급기간 15일에서 7일로 단축

SK그룹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애초 계획보다 30% 정도 채용을 늘리고 협력사에 대한 현금결제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SK그룹은 9월2일 2010년 말까지 계획보다 600여명(30%) 많은 2600여명을 새로 채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입사원 채용규모는 7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상반기 1100여명(신입사원 300명)을 선발한 SK그룹은 하반기 신입 700명을 포함해 모두 1500명을 뽑을 계획이다.

SK그룹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인 인재를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 계열사별 신규사업 확대를 목표로 채용규모를 추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00% 현금성 결제의 지급기간을 기존 15일 정도에서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상생펀드를 12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늘려 2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협력기업 연수시설인 상생 아카데미를 2차 협력사에도 개방키로 했다.

500억원을 투자해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운영하고, 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상용화와 1인 창조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투자는 단계적으로 2000억원까지 확대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계열사 최고경영자는 9월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상생방안, 서민 금융지원 등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키로 했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계열사 최고경영자 회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 중소기업과 서민이 자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기업 고유의 역할이자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본질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9/02>